



뉴욕 시 재개발 계획

Newsweek, April 28, 1969

거대한 계획과 환상의 꿈을 꾸는 시대에 뉴욕 사람들 그들의 시를 경이적인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장기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냉소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시장 린드세이와 지사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도시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지로 사실이였음이 구체화되었다. 더우기 그 계획이 상당히 많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건축 평론가 Ada Louise Huxtable은 그 계획이 놀랄만한 노력이라고 했다.

그 계획 자체는 1마일 길이의 선형(線形)의 도시로서 만하탄 서쪽 끝의 하드슨 강물을 따라서 10년 후에 지어질 포용력이 넓고 또 충분히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시(市) 중의 시로서 사무실, 주택, 학교, 상점, 극장, 음식점, 공원 그리고 그 시 자체의 내부 교통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계획이 완성되면 55,000주민들은 White Plains(뉴욕 동남부 지역)시 보다 더 큰 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 곳의 5백만 평방 feet의 사무실 공간은 세계의 새로운 오피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거래 이 개발계획은 Battery Park City(뉴욕 만하탄 남부의 공원)라 불리우는데 시장의 후원을 받은 주지사의 주관으로 계획을 실행하려는 3년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저명한 건축가 Wallace Harrison, Philip Johnson, William Conklin 세 사람이 많은 협상을 가져왔다. 현재 강으로 떨어들어간 지저분한 부두 그곳에 뽀뽀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Battery Park City를 테이커 케이크(크림, 젤리, 잼 등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가운데 넣은 카스텔라 과자)와 같이 건설해야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지는 하드슨 강 위 27feet가 될 것이며 계획한 전 길으로 뻗은 중앙 동선을

따라 위치한 상점, 음식점, 아케이드가 주택지 위에서 공원과 open space와 교체가 될 것이다. 지평선은 변경될 것이고 새 부두는 공원과 작은 만으로 인해 파괴될 것이다. 1,900개의 아파트는 주로 인접해 있는 금융지역이나 몇 발자국 건너편의 거대한 신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들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형태는 불비는 뉴욕 교통시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준다. 린드세이 시장은 말하기를 직장에 걸어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돈의 마술 이 계획에서 가장 묘한 부분이 재정문제이다. 주정부 당국은 주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세방을 뉴욕시로 부터 임대할 것이며 또 기본 시설에 투입할 1억5천만 달러를 현금이나 공채(公債)로 유통을 시킬 것이며 실지 공사를 위해서는 개인 건축주들에게 일부 지역을 청부 맡길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상승한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1억달러의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은 상당히 이윤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 시에서는 1년에 3천 5백만 달러를 빌리거나 다른 세입에서 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누구나가 이 계획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부두노조에서는 부두작업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 계획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만 1,266 Units, 중소득층을 위해서는 방하나에 50달러짜리 5,000, Units, 그 나머지 12,000 Units 이상을 100~150달러짜리 방으로 고소득층을 위해서 배분을 해놓았다는 이 사실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이며 지난 주에 록펠러 지사가 말하드시 뉴욕의 위대한 커뮤니티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